

# “무등산 사들여 지키자” 티끌 모아 기적

**무등산을  
세계의 국립공원으로**

광주일보 창사 61주년 캠페인

## ④ 무등산 공유화 운동

20세기 미국을 대표하는 소설가 월리스 스테그너(Wallace Stegner)는 “국립공원 제도는 인류가 창안한 최고의 아이디어”라고 극찬했다. 국립공원 제도는 미국에서 최초로 시작됐으며, 1872년 옐로스톤이 제1호 국립공원이다. 국립공원은 경이롭고 신비로운 자연현상을 사유(私有)가 아닌 공유(公有)화 해 국민 누구나 이용하고 즐거움을 향유하는 제도다. 다만 국립공원을 공유하는 조건으로 보존과 보호 의무가 뒤따른다.

무등산은 국립공원이던 1990년대부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공유화 운동’이 펼쳐졌다.

‘무등산을 우리 힘으로 지키자’라는 기치 아래 1991년부터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시작된 이 운동은 공동의 이름으로 무등산을 공유화해 무분별한 개발을 막아내는 게 핵심이었다.

무등산공유화운동은 시민들의 공감을 얻어 ‘무등산 땅 한평 갖기’ 시민운동으로 확대됐다. 무등산공유화운동의 모태는 영국의 여류 사회활동가 옥타비아 힐과 변호사 로버트

시민들 성금·토지 기부 잇따라  
22년간 6만명 54만9천㎡ 매일  
생태공원 조성 등 63만여㎡ 복원

헌터, 목사 케논 하드윅 톨즐리가 1895년 만든 내셔널트러스트(National Trust)운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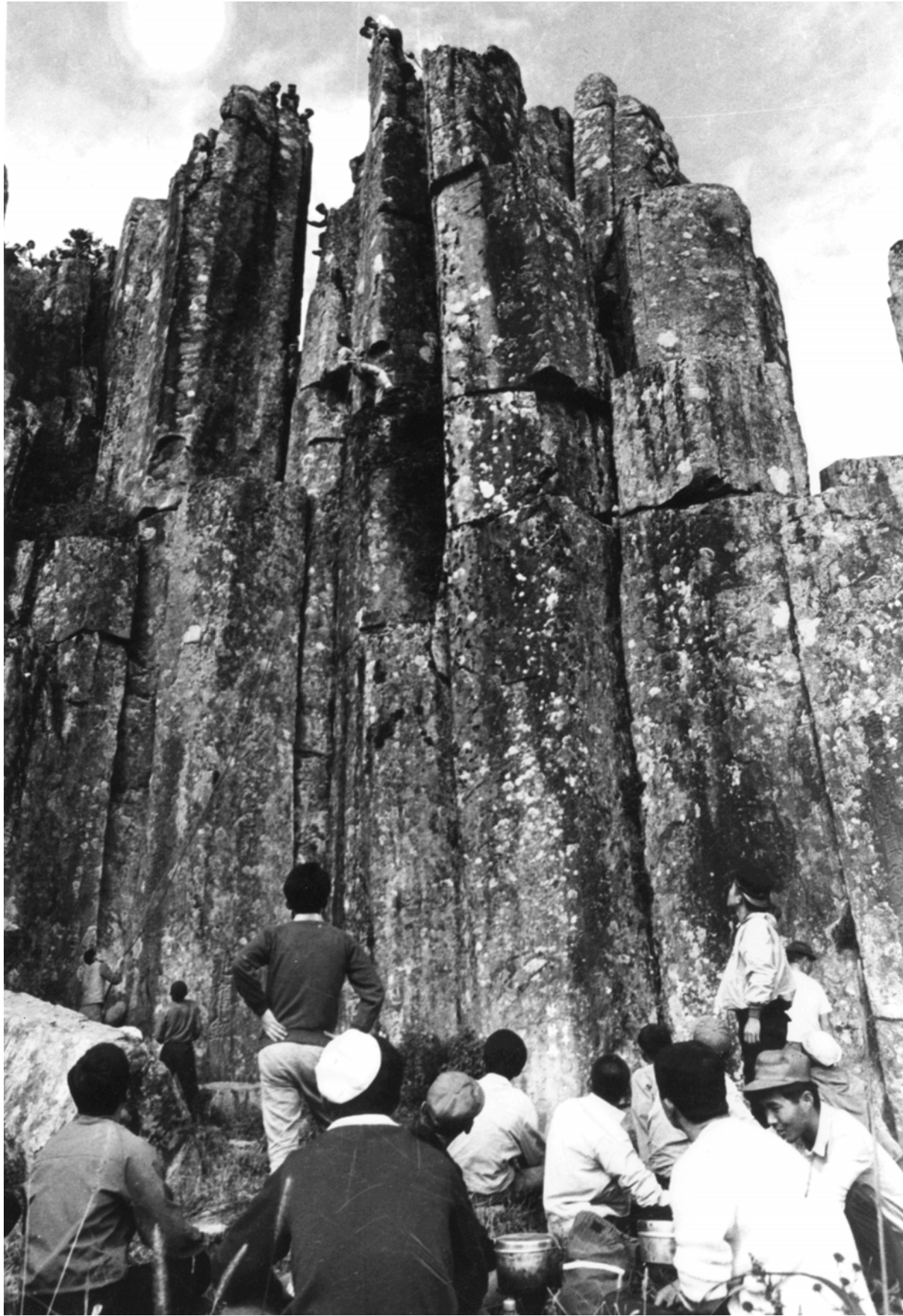
이들은 1800년대 후반 영국의 역사유물과 자연이 산업혁명으로 심하게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호해야 할 대상을 시민이 소유하는 운동을 펼쳤다. 영국정부는 1907년 내셔널트러스트법을 만들어 자연·문화유산의 영구보존과 양도불능을 선언할 수 있게 뒷받침했다. 현재 영국 내셔널트러스트는 430만명의 회원이 전 국토의 1%를 소유하면서 자연·문화유산을 보존하는 중추역할을 하고 있다. 내셔널트러스트는 2007년 세계기구가 발족하면서 30여개국에 참여하는 국제운동으로 확산됐으며 우리나라는 2000년 1월 한국 내셔널트러스트가 발족했다.

이보다 10여년 앞서 시작된 무등산공유화운동은 그동안 6만명에 가까운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현재까지 54만 9000㎡의 땅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 이는 세계에서 보기 드문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2000년 재단법인으로 새롭게 태어난 공유화재단은 ‘윤림온천’개발 논란이 일었던 무등산 자락 동구 윤림동 제1수원지 부근을 첫 대상으로 정했다. 이후 2억원의 성금을 모아 45만2366㎡(13만6840여평)를 사들였다. 시민들의 토지 기부도 잇따랐다.

2000년 4월 김복호씨의 무등산 새인봉 자락 땅 1408㎡ 기증을 시작으로, 2003년 의재미술관 이사장 허달재씨 소유의 동구 윤림동 문빈정사 북쪽 산자락 9917㎡와 임야 661㎡, 같은 해 안양산 휴양림을 운영하던 진재량씨 소유의 원효계곡 임야 3만1835㎡를 기증받았다. 또 조건국내과 병원장은 동구 용연동 임야 1만5273㎡를 매입해 기증했으며, 대성학원 이사장이던 최기영씨는 화암계곡 1만9835㎡를 기증하기도 했다.

현금기부도 이어져 재단은 모금액으로 무등산의 자연과 역사 가치도 골짜기와 상수원 보호지역 등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평두메계곡 13만여㎡, 화암계곡 11만여㎡, 화순군 이서면 일대 1만8843㎡ 등 시민의 정성으로 사들인 땅만 45만 2366㎡에 달한다.



1960년 가을 등산객들이 무등산 입석대를 오르기 위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일부 등산객들은 취사도구를 이용해 먹을 거리를 준비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공유화운동 이후 무등산 일대 일부 군부대가 이전하고 원효사지구 원주민촌 철거, 광주호생태공원 조성 등으로 무등산 63만여㎡가 복원되기도 했다. 공유화재단은 무등산의 국립공원 승격에 따라 잠시 주춤했던 공유화운동을 다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무등산공유화재단 관계자는 “국립공원 지정으로 무등산의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무등산 주변 일부 사유지 소유자들의 무분별한 개발이 우려된다”면서 “공유화운동을 통해 국립공원의 품격에 맞는 보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 국립공원 세계 1호 美 ‘옐로스톤’...한국은 ‘지리산’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은 미국 와이오밍주 등에 걸쳐 있는 옐로스톤(Yellowstone) 국립공원이다. 미국은 수십만년 전 화산이 폭발하면서 이뤄진 화산 고원지대인 옐로스톤을 1872년 국립공원으로 지정했다.

미국은 당시 국립공원에 대해 “모든 국민의 복리와 즐거움을 위한 공공(公共)의 공원이며 위락지”라고 정의를 내렸다. 미국의 국립공원 정신은 전 세계적으로 공유됐으며, 우리나라에서 제 1호 국립공원이 나온 해는 1967년이다. 그해 3월 정부가 제안한 ‘공원법’ 제정안이 국회에 통과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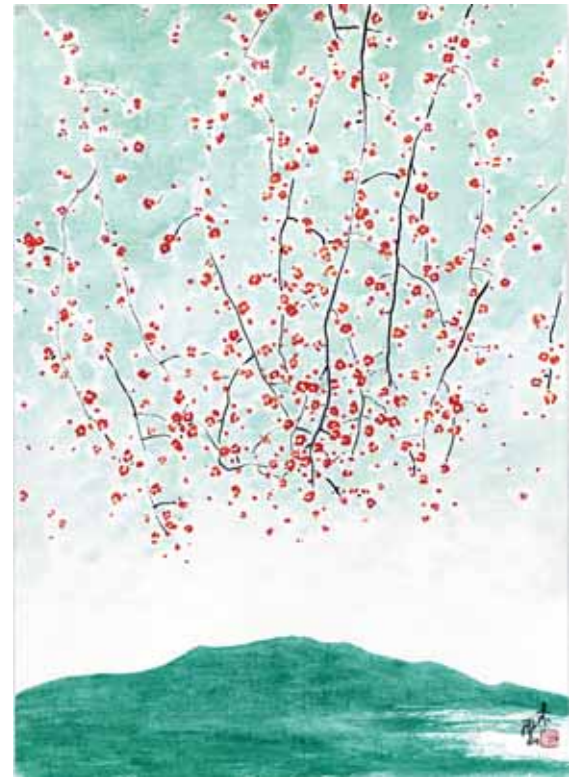
박정희 정부는 민·관 합동으로 지리산의 자연환경과 생태조사에 나서 같은 해 12월 29일 지리산을 ‘제1호 국립공

원’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지리산이 국립공원 1호가 된 배경에는 역사의 아픔이 자리 잡고 있다. 당시 남한에서 풍광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평가 받은 설악산이 국립공원에 우선 지정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으나 6·25 전쟁 때 물탄 포탄과 지뢰가 문제였다.

6·25때 최대 격전지 중 하나였던 설악산에는 대규모의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었고, 포탄과 지뢰도 곳곳에 깔려있었다. 정부는 “설악산의 지뢰 제거에 상당한 시일이 필요한 만큼 국립공원 지정은 어렵다”는 군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설악산은 3년 뒤인 1970년 제 5호 국립공원에 이름을 올렸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무등산 갤러리 오견규 작 '무등의 봄' 천에 수묵 채색(39 x 54cm)



“봄을 맞아 무등산의 산세를 부드럽고 포근하게 그렸다. 흥매는 겨울이 지나면 많은 꽃을 피워 봄을 알린다. 광주 시민에게도 흥매처럼 따뜻한 봄이 왔으면 한다. 또 무등산의 청록색과 흥매의 붉은색이 어우러지듯 상생의 삶을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나와 무등산 이승재 광주 금당초 교장

## 야생화 밷에 흠뻑...산과 친구됐죠



이승재씨(왼쪽)가 2010년 봄 어느 날 야생화 동호회원과 함께 '볼꽃 군락지'인 무등산 평두메 골짜기에서 야생화탐사를 하고 있다.

나와 무등산은 야생화로 연결돼 있다. 나의 취미는 야생화 사진을 찍는 것인데, 무등산은 우리나라 야생화의 전성지라고 할 정도로 종류가 많고 보존이 잘 돼있는 산이다. 특히 몇몇 야생화는 전국적으로도 보기 드문 넓은 군락을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틈만 나면 무등산을 오르고 또 오른다.

다만, 무등산이 야생화를 가득 품고 있음에도 체계적인 조사나 보호가 이뤄지지 않는 듯 해 아쉬움이 남는다. 그 예로 변산바람꽃은 1970년대에 변산반도에서 전북대학교 교수가 처음 발견해 그런 이름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한다.

지금도 대부분의 야생화 애호가들은 변산바람꽃을 관찰하기 위해 변산반도로 가고 있다. 그러나 변산바람꽃은 변산반도보다는 무등산에 훨씬 많은 개체가 자생하고 있다. 한창 개화 시기에는 바람에 날려 땅에 떨어진 꽃잎이 마치 눈이 오는 듯한 장관을 연출하기도 한다. 언젠가 무등산을 관리하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 보았으나 그 분들

은 변산바람꽃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다. 만약 광주 학자들이 무등산에서 먼저 발견해 무등바람꽃이라고 이름을 붙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하는 생각도 든다. 복수초도 우리나라 어느 곳 보다 무등산 일대에 가장 아름다운 개체가 대량 자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희귀하고 보전 가치가 높은 야생화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훼손되는 사례가 많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생각이다. 무등산을 오르다보면 일부 몰지각한 야생화 애호가들이나 사진작가들에 의해 야생화가 훼손하고 있는 모습을 종종 목격하게 된다. 야생화를 뽑아가는 경우도 있고 일부 사진작가들은 멋진 장면을 연출해내기 위해 자신이 모델로 삼고 싶은 꽃만 남겨두고 그 주변의 야생화들은 모두 짓밟아 놓는 개체이기도 하다. 무등산의 국립공원 지정에 맞춰 야생화를 보호하고 자생지를 복원할 수 있는 생태조사와 함께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우리 지산들도 아름다운 야생화를 볼 수 있을 기대해 본다.

## 독자투고 보내주세요

‘나와 무등산’은 무등산과 얽힌 추억이나 인연 등을 소개하는 열린 마당입니다. 200자 원고지 7매 분량의 글과 관련 사진을 받습니다. 보내실 곳은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사 '무등산 시리즈' 담당자 앞. e-메일 mudeung@kwangju.co.kr.

**보약, 흥삼은**

성인병 노화방지는

- 적절한 운동
- 마음에 평안
-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062-369-9227

**두충오가피**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60포 → 90,000원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